



강북구의회
GYEONGJU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강북신문 7면

◆강북구의회 신상발언- 이정식 의원

“같은 내용의 예산안 두 번 심의해 유감”

이정식 의원, “슬기롭고 성숙한 의회상 정립에 모두 노력해야”

강북구의회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16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2015년 제1차 추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두 번씩이나 심의하게 됨을 예결위 위원으로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안 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급하게 다시 제19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3일 동안 재심의했던 점에 대한 의견이다.

이 의원은 추경예산안을 두 번 심의하게 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값 비싼 고급 인력인 강북구 공무원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두 번씩이나 개최되는 바람에 많은 행정 공백이 야기됐다”며 “또한 추석을 앞두고 성묘 및 별초 등 공무원 개개인의 휴가계획이 차질을 빚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강북구민의 가까운 질책과 공무원의 냉소가 곤혹스럽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지난 회기인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면 이미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벌써 집행이 이



이정식 의원

루어졌거나 진행 중일 것이며, 그러한 집행은 결국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강북구민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께서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 올해 본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예산안을 재심의했던 점을 들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제1회 추경안을 재심의함은 어떤 논리로도 강북구민의 가까운 질책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고 강북구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안의 수정내용이 부결안과 의결안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회기를 두 번씩이나 개최되는 일들이 앞으로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자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 본회의에 상정된 의견은 일관된 의원들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용되어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라며 “보다 슬기롭고 성숙한 의회상 정립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일보 2면

신상발언

추가경정예산안 재상정 사태는 의원들의 성찰 필요...

이정식 의원

(새누리당/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제192회 폐회를 앞두고 이정식 의원은 2015년 제1차 추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소회를 피력하고자 한다면 신상발언에 나섰다.

이정식 의원은 지난 회기인 제191회 임시회에서 이미 제1회 추경안 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고, 또다시 부랴 부랴 제19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3일 동안 재심을 거쳐 2차 본회의에 이르는 것에 대해 이렇게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두 번씩이나 심의하게 됨을 예결위 위원으로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제1회 추경안을 두 번씩이나 심의하게 됨에 따라 많은



은 행정력의 낭비가 이루어졌습다. 값 비싼 고급 인력인 강북구 공무원에게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두 번씩이나 개최되는 바람에 많은 행정 공백이 야기되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성묘 및 별초 등 공무원 개개인의 휴가계획이 차질을 빚어 불만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강북구민의 가까운 질책과 공무원의 냉소가 저를 곤혹스럽게 한다”고 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만약 지난 회기인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면 이미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벌써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일 것이며, 그러한 집행은 결국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강북구민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나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께서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정식 의원은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도 올해의 본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연말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청의 모든 사업을 지체롭게 마무리했어야 함에도 다시 12월 연말에 임시회가 개최되어 예산안을 재 심의한 바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제1회 추경안을 재심의함은 어떤 논리로도 강북구민의 가까운 질책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강북구민들에게 회자됨은 강북구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예산안

의 수정내용이 부결안과 의결안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회기를 두 번씩이나 개최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외부적으로는 의원 간의 사사로운 감정대립의 결과물로 비추어지는 않을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자성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어떤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게 된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 본회의에 상정된 의견은 일관된 의원님들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용되어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슬기롭고 성숙한 의회상 정립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먼저 이정식 의원 본인이 신상발언을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였다고 말했다.

추경안 부결 후 임시회 재소집은 행정력 낭비

부결안과 수정안 거의 차이 없어 의원들간 감정 대립으로 보여
이정식 의원, 신상발언서 “상임위 결정 사항 본회의에도 일관 돼야”

이정식 의원이 192회 임시회 마지막 날 신상발언을 통해 추경안 부결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192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신상발언에 나서 “제191회 임시회에서 이미 제1회 추경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며 “제192회 임시회 3일 동안 재심의를 거쳐 통과됐지만 이렇게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두 번씩이나 심의하게 됨을 예결위 위원으로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추경안을 두 번씩이나 심의해 행정력의 낭비됐다”며 행정 공백을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점을 들며 “191회에 의결됐다면 이미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집행이 이뤄졌거나 진행 중일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강북구민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모든 의원들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작년 본 예산의 부결을 언급하며 “올해 또 다시 제1회 추경안을 재심의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강북구민의 따가운 질책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강북구민들에게 회자됨은 강북구의회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안의 수정내용이 부결안과 의결안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회기를 두 번씩이나 개최한 것은 의원들 간 감정대립으로 보일 것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떤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 의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게 된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 본회의에 상정된 의견은 일관되게 의원들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용 돼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신상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정식 의원이 추경 예산 처리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이정식 의원 신상발언

같은 내용 예산안 재심의 유감 표명



9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식 의원이 2015년 제1차 추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발언대에 섰다.

이 의원은 “지난 회기인 제191회 임시회에서 이미 제1회 추경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다시 제19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3일 동안 재심의를 거쳐 오늘 마지막 2차 본회의에 이르렀다”며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두 번씩이나 심의하게 됨을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도 올해의 본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다시 12월 연말에 임시회가 개최되어 예산안을 재심의한 바 있다”고 말하고 또 다시 제1회 추경안을 재심의함은 어떤 논리로도 강북구민의 따가운 질책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지난 회기인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면 이미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벌써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일 것이며, 그러한 집행은 결국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강북구민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께서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떤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게 된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 본회의에 상정된 의견은 일관된 의원들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용되어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슬기롭고 성숙한 의회상정립에 노력하자고 했다.